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5. 12. 27(일)	
		작 성 문 의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총무과장 이희은 주무관 나홍환 (Tel. 044-200-2781)
12시 이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은 깜짝 선물로 ‘오지 근무자들을 응원’ 하다!

- 황교안 국무총리, 특수지 집배원 등 561명에게 직접 ‘편지와 목도리’ 선물
- “힘든 직무지만,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지와 자부심을 가져달라” 주문

□ 추운 겨울 도서·벽지, 산간 등에서 묵묵히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오지 근무자들에게 황교안 총리가 보낸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 황 총리가 특수지역에 소식을 전하는 집배원, 산간·오지의 1인 지역대 소방대원, 도서 지역 1인 출장소 해양경찰관 등 오지근무자 561명에게 직접 편지와 목도리를 선물한 것이다.

○ 평소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했던 황 총리는, 연말을 맞아 그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선물을 골랐다.

※ 대상 (단위 : 명)

특수지 집배원*	소방대원 (1인 지역대)	해양경찰관 (1인 출장소)
204	197	160

* 도서·벽지 등 집배환경이 특수한 지역에서 우편배달업무를 수행

- 황 총리는 집배원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공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했다.

-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1인 지역대)들에게는 “소방관은 국민의 든든한 이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대원의 직무는 힘들지만 값진 사명”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했다.
- **해양경찰관**(1인 출장소)들에게는 “홀로 근무하는 해경 출장소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어민들에게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는 등 그 임무가 참으로 막중하다”고 강조하고, “바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큰 사명감을 갖고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 한편, 황 총리는 지난 12.22일에도 사회에 귀감이 된 ‘감동·열정 공무원 격려 행사’를 마련하여, “공직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예우를 받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한문 첨부> 1. 특수지 집배원
 2. 소방대원 (1인 지역대)
 3. 해양경찰관 (1인 출장소)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가운 사연을 가득 담은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서는 특수지 집배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휴대폰으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주고받는 세상이 되었지만, 아직도 산간벽지나 도서 지역에는 사람들의 발길을 그리워하는 외로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소식은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저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국무총리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취약지역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대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관은 국민의 든든한 이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귀하의 직무는 힘들지만 값진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안전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평온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국무총리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과 거센 파도를 헤치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특히 홀로 근무하는 해경 출장소는 우리 바다를 지키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는 등 그 임무가 참으로 막중합니다.

외진 도서지역에서 적은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어려움도 많겠지만, 바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큰 사명감을 갖고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아 저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5년 12월

국무총리